

사회적 농업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이 여성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효순*

Contents

1. 서론	19
2. 연구 방법	21
3. 연구 결과	27
4. 결론	36

Keywords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세대 간 상호작용(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여성 노인(elderly women),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적 관계(social inclusion)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이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69~80세 여성 노인 4명으로, 이들은 14회에 걸쳐 아동과 함께하는 농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iorgi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반성적 글쓰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농업에서의 세대 간 상호작용은 여성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하고, 자아존중감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과 아동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이 노인 복지 및 지역사회 통합의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세대 간 교류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치료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indie88@naver.com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on the lives of elderly women in social agriculture

Lee Hyo-soon*

Keywords

Social farming,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elderly women, self-efficacy, quality of life, social inclusion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in social farming influence the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in rural areas. The participants engaged in 14 agricultural sessions with children in a rural South Korean communit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and reflective writing, the study applied Giorgi's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analyze participants' experienc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played a crucial role in enhancing self-efficacy, strengthening social relationships, and providing a renewed sense of purpose. Participants reported increased confidence and emotional fulfillment resulting from mentoring and guiding children.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of social farming as a community-based intervention to reduce social isolation and promote well-being among elderly individua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corporating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into social farming programs can create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elderly women to remain active in their communities and experience personal growth.

* Completion of the Department of Humanities Therap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e-mail: indie88@naver.com

1. 서론

2024년 통계청 인구총조사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8.6%로 나타났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5.4%로 집계되었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횡성군은 고령화율이 36.8%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영월군(35.8%), 양양군(35.3%) 등의 지역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농림어업인 조사²⁾에 따르면, 횡성군의 농업 인구 비율은 25.2%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높아, 초고령 사회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농업이 여전히 주요한 경제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고령자에 대한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³⁾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노인은 도시 지역의 노인에 비해 정신적 건강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의 30% 이상이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 또한 저조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단순한 농업 생산 활동을 넘어,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환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포용과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Iacovo & O'Connor 2009). 전 세계적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Gonzalez & Kirkevold, 2014). 해외 연구들은 초기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Gonzalez & Kirkevold, 2014), 자기효능감 회복(Pretty et al., 2011), 사회적 연대감 형성(Hassink et al., 2011)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노인의 정서적 안녕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plan, 2002; Heyman & Gutheil, 2008; Sempik et al., 2008).

국내에서도 2012년 이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섭(2017)은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적 농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럽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황보혜(2019)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 사회보장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부처 협업이 필요하다는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도 진행되었다.

1)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

2)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 <<https://stat.bucheon.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6229&menuid=092002003&boardid=965364>>.

3)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 <<https://kostat.go.kr>>.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농업이 단순한 농업 활동을 넘어, 사회적 포용 및 지역사회 연대 강화에 기여하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농업이 일반적인 농촌 환경에서 정신 건강 및 사회적 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율과 농업 종사 비율이 높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농업이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저학력 여성 노인이 농업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효능감을 발굴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 저학력 여성 노인의 사회적 역할 회복, 삶의 보람 증대,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저학력 여성 노인이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은 변화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1. 사회적 농업 활동이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정신적 건강(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 세대 간 교류(아동과의 상호작용)가 사회적 농업 활동과 결합되었을 때, 노인의 삶에 미친 효과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횡성읍에 거주하는 저학력 여성 노인과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해당 활동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 서비스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노인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총 14회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도하였으며, 각 회차 활동 후 개인적인 소감을 글쓰기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 활동 종료 후, 연구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 기술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⁴⁾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사회적 농업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황성읍에 거주하며 학력 수준이 유사한 여성 노인 4명과 황성군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해당 활동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 서비스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노인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협력하여 총 14회의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각 회차 활동 후 개인적인 소감을 글쓰기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활동 종료 후,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삶의 질 평가 척도(WHOQOL-BREF)를 변형하여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현상 기술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촌 지역 저학력 여성 노인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그로 인해 노인에게 제공된 사회적 서비스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연령	65~69세	1	25
	70~74세	1	25
	75~79세	1	25
	80세 이상	1	25
동거여부	배우자	3	75
	독거	1	25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4	100

자료: 저자 작성.

2.1.1.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권 보호 및 연구 윤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연구 참여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동의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IRB 심사를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자는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 윤리 관련 지식을 보완하였

⁴⁾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고령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음. 변애경·윤창국(2017)은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본 여성 노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의미탐색’에서 학습 기회의 부재가 노인 여성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또한, 이러한 교육적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고령 여성들은 과거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음.

다(IRB-KWNU-2025-0028). 또한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자발적 참여 원칙 준수 등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2.2. 자료 표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가장 적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연구 참여자는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례는 2024년 4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매 차시 농업 활동 종료 후 활동에 대한 느낌을 작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2.2.1. 글쓰기

본 연구에서는 아동 대상 사회적 농업 활동이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차시별로 기록한 글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정연희(2013)의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는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깨달음이 더욱 깊어진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험을 글로 쓴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기록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며, 글쓰기가 개인의 내면적인 성찰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 글쓰기는 참여자들이 아동들과 함께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정서적으로 드러내고 진솔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글쓰기는 단순한 활동 기록을 넘어, 자신들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 치유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글쓰기를 통해 그들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활동이 농촌 지역 저학력 여성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쓰기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활동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농업 활동 후 매번 작업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그들이 경험한 활동 내용과 감정을 기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감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농업 활동의 효과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들의 내면적 성장을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2.2. 심층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한 답변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평하게 수집하기 위해 1:1 면담 방식의 심층 인터뷰를 글쓰기와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개별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응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유기웅 외(2018)는 인터뷰의 진행 방식을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비구조화된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로 구분하였다. 구조화된 인터뷰는 질문의 순서와 형식이 고정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자율성이 제한된 인터뷰 방식이며,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기본 질문을 미리 설정하되,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후속 질문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사전 질문 없이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솔직한 소감과 진솔한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핵심 질문을 설정하되,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질문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삶의 질 평가 척도(WHOQOL-BREF)를 변형하여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민성길 외, 2000). WHOQOL-BREF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적 요소의 네 가지 주요 영역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낮은 환경적 요소와 신체적 건강 영역을 제외하고,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관계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2. 인터뷰 질문지

연번	구 분	질문 내용
1	정신적 건강	아동 대상 사회적 농업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아동들을 가르치시는 일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3		아동들을 가르치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아동을 가르치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5		가르치시는 일을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6	사회적 관계	아동을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7		함께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8		아동을 가르친 후 마을 사람들과 관계 변화가 있었더라면 무엇인가?

자료: WHOQOL-BREF 질문지를 변형하여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항목 변형하여 저자 작성.

심층 면접은 인터뷰 요청을 사전에 안내하고 면담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 시간은 1시간 내외로 1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읍하4리 주민공유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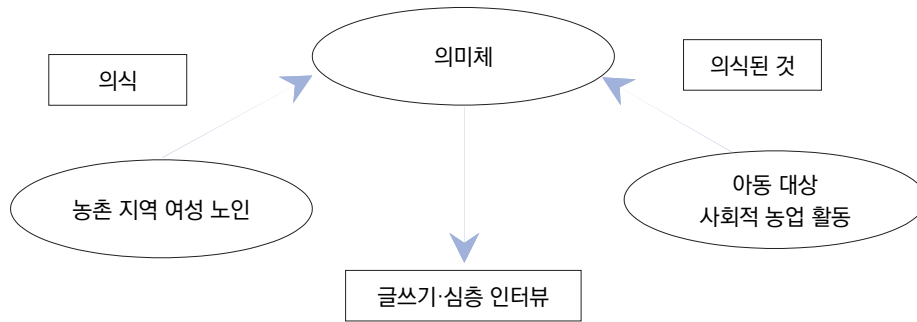
질적 연구방법론(유태균·이선희, 2005)에 따르면, 인간 경험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특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언어적 자료 속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고,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공통된 구조를 발견하여 이를 본질적인 구조로 환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의 직관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질적 연구의 주요 탐구 유형은 문화기술지(ethnography),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사례연구(case study), 내러티브연구(narrative research), 현상학(phenomenolog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크게 해석학적 현상학, 경험적·초월적·심리적 현상학으로 구분되며, 경험적·초월적·심리적 현상학은 후설의 초월적 현상학과 현상 기술법으로 세분화된다. 현상 기술법은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으로, Giorgi의 현상 기술법은 의식에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그 의식과 경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는 Giorgi(2009)의 현상기술법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본질적인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Giorgi의 방법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기술적 접근을 취하며, 그 경험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식별하고 본질적 구조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 선생님이로서 사회 참여 경험과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이 연구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을 주관적인 경험의 기록인 글쓰기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의미 있는 유형을 찾아내고, 그 경험들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기웅 외(2018)의 질적 연구방법에 의하면, <그림 1>은 인간의 의식이 항상 어떠한 대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의식하며, 이 의식의 대상은 의식 활동을 촉진하는 현상이다. 사람, 의식, 의미체, 대상 간의 관계는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연구자인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은 의식적 사유의 주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활동은 그 주체가 지향하는 대상이 된다. 주체가 대상(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유하는지는 ‘의미체’로 정의되며, 이러한 의미체는 글(일기)과 언어(인터뷰)를 통해 수집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 활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참여자들이 공유한 진술에서 감정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의식의 지향성: 사람, 의식, 의미체, 대상의 관계



자료: 유기웅 외(2018)의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분석 과정은 Giorgi(2009)가 제시한 4가지의 구체적 단계들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이혜경, 2008). 첫째, ‘전체의 인식 단계’로 주어진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둘째,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단계’로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표시하며 의미 단위를 식별하는 단계이다. 셋째,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단계’로 앞서 구분한 의미 단위를 연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학문적 표현으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넷째, ‘전환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로 학문적 용어로 변환된 의미 단위를 통합하여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경험의 일반적 구조, 즉 경험의 의미를 찾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Giorgi 현상학적 기술법 자료 분석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반적 이해	구체적 의미 단위 식별	학술적 용어로 전환	구조 통합

자료: 저자 작성.

본 사례에서는 앞서 제시된 분석 단계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참여자의 글과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은 면담 내용을 통해 전체적인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이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표시된 진술 내용을 비교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31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미 단위들을 자료와 대조하며 읽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의미 단위들을 묶어 7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추론하였다. 다음으로 7개의 하위 구성 요소에서 동질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묶어 3개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의미 단위 구분 후 세 번째 단계는 31개의 의미 단위에서 7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추론하며,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3개의 구성 요소를 연구 참여자

들의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배열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1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농업 활동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4.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본 연구는 가족적 분위기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진행된 공동 작업과 협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2024년 4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농업 과정에 중점을 두어 구성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모둠을 구성하고 각 모둠의 지도교사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모둠 이름을 선정하고 텃밭 팻말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각 모둠의 지도교사와 아동들 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밭에 거름을 주는 준비 과정부터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다. 밭이 준비된 후에는 상추, 카네이션, 토마토 등의 모종을 심고, 매주 물 주기와 잡초 제거 등을 하며 밭을 관리하였다.

5월에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텃밭에서 자란 카네이션을 수확하고, 카네이션 코사지를 만들어 부모에게 선물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스승의 날에는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들에게 카네이션 화분을 제작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 공동 텃밭에서는 무농약 농업을 실천하였고, 이를 위해 지렁이를 키우며 토양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

6월에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 쪽갓, 방울토마토 등을 수확하여 각자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으며, 가족들에게 자신이 기른 채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월에는 수확한 채소와 허브를 활용하여 간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지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애플민트와 스피어민트 등 수확한 허브를 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하여 식물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의 노고를 되새기고,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사회적 농업 활동 내용

회차	주 제	내 용
1	함께하기 위한 준비	사회적 농업 소개, 팀(강사) 정하기, 팀과 자기소개, 텃밭 명찰, 텃밭 규칙 만들기, 텃밭 둘러보기
2	텃밭 준비하기	농부 모자 만들기, 텃밭 팻말 만들기, 텃밭 둘러보기
3	모종 심기	텃밭 거름흙 섞기, 팻말 꽃기, 모종 심기, 모종 이름표 쓰기, 물주기
4	어버이날 코사지 만들기	카네이션 수확하기, 코사지에 꽃 장식하기, 부모님께 카드 쓰기
5	스승의 날 꽃바구니 만들기	카네이션 외 꽃 수확하기, 꽃바구니에 꽃꽂이하기, 선생님께 카드 쓰기
6	지렁이 퇴비 상자 만들기	지렁이 이야기 나누기, 자연 순환 퇴비 이해하기, 퇴비 상자에 상토 넣기, 지렁이 넣기, 부산물(먹이) 넣기
7	텃밭 관리하기 및 채취하기	텃밭 관리하기 1 물주기, 풀 뽑기, 상추와 토마토 채취하여 나누기
8	텃밭 관리하기 및 식물 채취하기	텃밭 관리하기 2 스피어민트, 로즈메리 수확하기, 알코올에 킁치하기, 방울토마토, 상추 채취하기
9	텃밭 관리하기 및 식물 편지쓰기	물주기, 미생물제 주기, 텃밭 식물 편지쓰기
10	텃밭 관리하기 식물 그림그리기	물주기, 미생물제 주기, 막걸리 트랩 만들기, 개미 트랩 만들기 텃밭 식물 그림그리기
11	텃밭 간식 만들기	텃밭 채소 수확하기, 모닝빵 간식 만들기
12	텃밭 음료 만들기	애플민트 수확하기. 애플민트 절구에 쥘기, 모히토 만들기
13	허브를 활용한 제품 만들기	알코올에 킁치한 허브를 활용한 나만의 림 스프레이 만들기
14	팜파티(카나페)	식용꽃, 채소 수확하기, 고르곤 졸라 피자 만들기, 소감 나누기

자료: 저자 작성.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한 변화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31개의 의미 단위를 찾아내어 7개의 하위 구성 요소와 3개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각각 자기효능감의 발굴, 새로운 정체성 발견, 행복한 관계 맺기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종합한 본질적 주제로 ‘자기효능감의 발굴과 행복한 관계 맺기’를 도출하였다.

표 5. 사회적 농업 활동에 대한 구성 요소

구성 요소	하위 구성 요소	의미 단위
① 자기효능감의 발굴	자신감 부족	- 선생님 자격이 없음. 자신이 없음. - 우리는 못했을 것 같음. -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의문 - 아이들을 가르칠 줄 모르는데. -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걸.
	조금씩 성장하는 나의 모습	-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나아진 것 같고. - 옆 선생님을 따라 하니 할 수 있었음. -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 - 내가 아작은 쓸 만한가. - 내가 아작은 꽤 괜찮은 사람이네.
② 새로운 정체성 발견	새로운 자아 발견과 가르치는 기쁨	- 아이들 모두 가르쳐 주면 하는 대로 잘 따라 함. - 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임. -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기쁨. - 나이 먹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함.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즐거움 발견	- 농사짓는 것을 알려주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낌. - 상추와 쪽갓을 아이들이 가지고 가니 너무나 뿌듯하고 즐거워서 기분이 너무나 좋다. -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또 밭에서 같이 일하면 활동하다 보니 서로 즐거웠다.
③ 행복한 관계 맺기	돌봄과 공감	- 아이들을 보면 나도 기쁘고 즐거움. - 일상이 즐거우며 행복하고 만족함. -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붙여 줌. - 아이들이 결석하면 마음이 안타까움. - 아이들과의 활동이 재미있고 즐거웠음.
	염려와 배려	- 가슴이 조마조마, 성*이가 의자에서 넘어져 입술이 조금 뭉그러졌다. 내 가슴이 쿵당쿵당, 진정이 안 된다. - 우리 벚꽃 반 친구 중 유독 작은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남다른 손이 더 가게 된다. - 아이들이 아파서 결석한 것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 울적한 날이라고 표현하며 안타까워하였다. - 아이들이 모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건강 하자.
	인정과 지지	- 우리 딸이 엄마 잘하고 있다고 함. - 딸내미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니가 좋아함. - 손자들에게 할머니가 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할머니 좋겠다고 관심을 보임. - 남편이 열심히 해보라고 지원함.

3.1. 자기효능감의 발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일제강점기(1942년)부터 6·25 전쟁 이후(1955년)에 태어난 세대에 속하며, 가난한 유년 시절로 인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다. 연구 초반, 참여자들은 교수 활동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강사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아동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Bandura(1977)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하였다. 태명원(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저학력 여성 노인이 아이들과 함께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

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1. 자신감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아동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하여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동들이 농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1은 “처음에 아이들과 수업을 하려니 농사일을 아이들의 손으로 할 수 있을까? 또 밭에 나가서 일들을 해야 한데 텃밭에 나가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농사짓는 수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첫째로 걱정을 많이 했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이 아동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 2는 “내 자신이, 이 나이에, 내가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내가 자신이 없지.”라고 고백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처음에는 애들이 들어올 때 제 이름이 뭐더라 뭐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났지.”라고 어려움을 겪었음을 나타냈다. 또한, “애들도 낫도 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라고 걱정했지. 말주변도 없고.”라고 말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인터뷰)

- “처음에 아이들과 수업을 하려니 농사일을 아이들의 손으로 할 수 있을까? 또 밭에 나가서 일들을 해야 한데 텃밭에 나가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
- “아이들에게 농사짓는 수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첫째로 걱정을 많이 했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 “내 자신이, 이 나이에, 내가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내가 자신이 없지.”
- “처음에는 애들이 들어올 때 제 이름이 뭐더라 뭐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났지.”
- “애들도 낫도 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라고 걱정했지. 말주변도 없고.”

3.1.2. 조금씩 성장하는 나의 모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점차 자신감을 얻고, 심리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1은 “그런데 막상 수업을 해보니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잘하는 거야. ‘구멍이 파봐라.’, ‘모종 심어라.’, ‘상추 따봐라.’ 등을 함께 하면서 걱정이 사라졌지.”라고 말하며, 아동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 점점 수업이 편해졌지.”라며 “그래도 이런 일을 나한테 맡겨준다는 건 고마운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라고 말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4는 “내가 이 나이에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나를 잘 따른다는 것이 좋아. 이제 나도 이 시간이 기다려져.”라고 말하며, 아이들과의 교감을 즐기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2는 “자부심

을 갖는 거지. 내가 아직은 쓸 만한가? (웃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꽤 괜찮은 사람이네. (웃음)”라고 응답하며, 자기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져 있지는 않지. 그리고 기분 좋지. 내색은 안 하지만 ‘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이 있고.”라고 언급한 참여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것도 뿌듯하고요.”라며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인터뷰)

- “그런데 막상 수업을 해보니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잘하는 거야. ‘구멍이 파봐라.’, ‘모종 심어라.’, ‘상추 따봐라.’ 등을 함께 하면서 걱정이 사라졌지.”
-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 점점 수업이 편해졌지.”
- “그래도 이런 일을 나한테 맡겨준다는 건 고마운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 “내가 이 나이에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나를 잘 따른다는 것이 좋아. 이젠 나도 이 시간이 기다려져.”
- “자부심을 갖는 거지. 내가 아직은 쓸 만한가? (웃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꽤 괜찮은 사람이네. (웃음)”
- “처져 있지는 않지. 그리고 기분 좋지. 내색은 안 하지만 ‘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이 있고.”
-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것도 뿌듯하고요.”
- “나는 두 번째 주에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어.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 내가 그런 정신은 가지고 있다고 했어.”
- “이제는 머리에 이제 ‘재 소*이구나, 재는 성*이구나’ 하고 알지.”

주: 참여 아동의 실명 보호를 위해 *로 처리함.

3.2. 새로운 정체성 발견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초반,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아이들에게 가르칠 자신이 없었다.”라는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아이들이 나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감하였다. 특히 “아이들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뿌듯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이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더라.” 등의 진술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아동들과의 교류 및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감 형성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참여자

들이 “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 및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농업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한 활동 수행을 넘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며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3.2.1. 새로운 자아 발견과 가르치는 기쁨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초반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등의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쁘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역할 수행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한 농업 활동 참여를 넘어,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뿌듯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배울 점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내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애들이 물어봐 주는 게 좋다.”라고 응답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상호 교류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었음을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아동과의 교류 및 역할 수행을 경험하면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아이들이 내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쁘다.” 등의 반복적인 진술이 나타났으며, 이는 역할 수행을 통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자 인터뷰)

- “이 수업이 저에게는 잘된 수업이다.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고... (중략) 2학기 수업도 하고 내년에도 수업을 계속하면 더욱더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다.”
- “자부심을 갖는 거지. 내가 아직은 쓸 만한가? (웃음)..... (중략)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꽤 괜찮은 사람이네.”
- “(일상생활에서) 처져 있지는 않지. 그리고 기분 좋지. 내색은 안 하지만 ‘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이 있고.”
-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중략) 저한테 또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것도 뿌듯하고요.”
- “할머니는 그런(가르치는 일) 일을 안 해보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행복한 것 같다.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진짜 행복해.”
- “난 계속하고 싶어, 애들이 물어봐 주는 게 좋아.”

-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딴어? 그지, 애들한테 한 가지라도 가르치고 도움 준다는 게 좋은 거지.”
-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은 힘들지 않고……. (중략) 그리고 신이 나잖아. 그래서 활동에 만족해요.”
- “아이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아주 기분이 좋았다.”

3.2.2.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즐거움 발견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었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아동과의 대화와 교감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단순한 활동 참여를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삶에 활력을 얻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농업 활동 수행을 넘어 사회적 교류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자 글)

- “텃밭에 나가 토마토 손질도 하고 상추랑 썩갯도 따왔다. 상추와 썩갯을 아이들이 가지고 가니 너무나 부듯하고 즐거워서 기분이 너무나 좋다.”
- “상추와 썩갯을 아이들이 가지고 가니 너무나 부듯하고 즐거워서 기분이 너무나 좋다.”
- “아이들과 함께 상추를 뜯어다가 모닝빵에 딸기잼을 바르고 치즈, 햄, 상추를 올려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에 너무 행복했다.”
-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또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활동하다 보니 서로 즐거웠다.”

3.3. 행복한 관계 맺기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관심과 지지를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아동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화장하셨네요.” 등의 표현을 하였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하며, 서로가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표정, 몸짓, 눈 맞춤 등)을 통해 아동들의 반응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먼저 인사해 줄 때 기분이 좋았다.”, “나를 따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정서적 관계 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다. “우리 딸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며? 멋있다.’고 말해 줬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등의 진술을 통해, 사회적 농업 활동이 가족 내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경험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동기가 되었으며, “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즐겁다.” 등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아동들과의 교류 및 가족들의 지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자부심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3.3.1. 돌봄과 공감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과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은 “우리 아이들에게 ‘애들아, 우리 선생님 바꿔볼까?’ 했더니, 아이들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하며, 아동들과의 관계 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아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진술하였다. “2학기 수업도 하고 내년에도 수업을 계속하면 더욱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들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연구 참여자 2는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예쁘다.”, “칭찬을 많이 해 주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깐,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며, 아동들과의 교류가 자신의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서적 상호작용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즐겁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등의 반복적인 진술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아동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참여자 인터뷰)

- “우리 아이들에게 ‘애들아, 우리 선생님 바꿔볼까?’ 했더니 아이들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야.”
-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중략) 아이들이 보고 싶다.”
- “이 수업이 저에게는 잘된 수업이다……. (중략) 2학기 수업도 하고 내년에도 수업을 계속하면 더욱더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다.”
- “예*이는 다문화가정 아이라 정서적으로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친구 거를 뺏고 욕심내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 부족

해서 욕심을 부려도 채워 지지가 않아. 그래서 더 예쁘다 칭찬을 많이 해.”

- “아이에게 주니 상추가 너무 많다며 이웃과 나눠 먹는다고 한다. 아이의 마음이 예쁘다.”

-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깐,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 “내가 이 나이에 조그만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나를 잘 따른다는 것이 좋아. 이젠 나도 이 시간이 기다려져.”

주: 참여 아동의 실명 보호를 위해 *로 처리함.

3.3.2. 염려와 배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출석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며, 결석하거나 아픈 아이들에 대해 걱정을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은 한 아동이 의자에서 넘어져 다친 상황을 회상하며 “가슴이 콩당콩당, 진정이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학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우리 반 친구 중 유독 작은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더 손길이 간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특정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픈 아이들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은 “서*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했을까?”, “준*이는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한다. 빨리 건강해져서 학교에 다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이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건강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연구 참여자 2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특히 수업에 안 나온 아이가 있으면 더 궁금하지. 애네가 어디 아픈가 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가 아이들의 출석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출석 여부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연결감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글)

- “가슴이 조마조마, 성*이가 의자에서 넘어져 입술이 조금 뭉그러졌다. 내 가슴이 콩당콩당, 진정이 안 된다.”

- “우리 벚꽃 반 친구 중 유독 작은 친구가 있다. 같은 2학년인데도 너무나도 작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남 다른 손이 더 가게 된다.”

- “안쓰러운 마음, 울적한 날, 서*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한다.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했을까? 준*이는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한다. 빨리 건강해져서 학교에 다니기를 기도한다.”

- “준*이는 아직까지 감기가 낫지 않았고, 서*이도 아파서 출석하지 못했다. 많이 아픈 것 같다.”

- “오늘은 성* 친구가 감기에 걸려 참석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모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건강하자.”

- “특히 수업에 안 나온 아이가 있으면 더 궁금하지. 애네가 어디가 아픈가 하고. 성*이 한 번 안 왔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

주: 참여 아동의 실명 보호를 위해 *로 처리함.

3.3.3. 인정과 지지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 딸이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멋있네!’라고 해 줬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수업한다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등의 반응을 경험하며,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동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남편이 열심히 해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딸이 ‘엄마, 배우면서 하면 되지’라고 해 줘서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진술을 통해, 가족의 지지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희진·한금선(2022)은 가족의 긍정적 관심과 지지가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활동 참여의 지속성에 있어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 줘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의 인정과 지지가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 인터뷰)

- “우리 딸이 ‘엄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자꾸 불러서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 불러주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부지런히 가서 시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 “딸내미가 ‘엄마 그런 일을 해?’, 그러는 거야. ‘엄마는 할 줄 모르는데도 자꾸 국장님이 하시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좀 그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유, 배우면 되지 뭐.’ 그러는 거예요.”
- “우리 외손자와 외손녀들이 ‘할머니 뭐야 공방에서 뭐 아이들 할머니가 가르친다며?’ 그래, ‘할머니 좋으시겠다.’ 이러는 거야.”

3.4. 종합적 해석: 자기효능감 발굴과 행복한 관계 맺기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1942년)부터 6·25 전쟁 이후(1955년)에 태어난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자기효능감 발굴과 행복한 관계 맺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저학력 농촌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기존에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초기, 참여자들은 강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과 교수 활동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아동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교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단순한 농업 기술 전수를 넘어, 연구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으며, 배움과 가르침이 상호작용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가치 있다는 점을 실감하였으며, 이는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안정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안부를 묻고 칭찬을 건네는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상호작용 속에서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들과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들의 반응과 태도를 해석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들의 인정과 지지가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존경, 지지, 애정, 신뢰를 받으며, 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저학력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과 아동과의 세대 간 상호작용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14회에 걸쳐 아동과 함께 농업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활동 종료 후 글쓰기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 기술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참여 노인들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새로운 사회적 역할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자신감 부족과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던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은 노인들에게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하였으며, 이는 곧 ‘자기효능감의 발굴’과 ‘행복한 관계 맺기’라는 본질적 주제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과 세대 간 상호작용이 결합된 실천 모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농촌 고령 여성의 자아 정체성 회복 및 심리·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 및 사회적 지지 개념을 현장 맥락에 적용한

실증적 근거로서, 사회적 농업이 단순한 농업 활동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복합적 도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노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은 노년기 자아 정체성 형성 이론의 실제 적용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농촌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고령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단순 수혜자 중심의 복지 모델을 탈피하여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노인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제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농업기술센터, 복지기관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훈련, 활동비 지원, 교통편의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이 단발성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세대 통합형 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세대 간 상호작용이 노인의 삶에 주는 심리적 회복 효과는 고령자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적 처방으로서 더욱 주목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장을 통해 고령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동체 중심의 세대 통합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his work is licensed under CC BY-NC-ND 4.0.

참고문헌

- 김정섭.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증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희진, 한금선. (2022). 우울증 환자의 자존감, 스트레스, 가족지지, 회복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간호학회*, 31(4), 438-447. <http://doi.org/10.12934/jkpmhn.2022.31.4.438>
-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1-12.
- 변애경, 윤창국. (2019).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본 여성 노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의미탐색. *평생학습사회*, 3(3), 1-32.
- 유기용, 유태균, 이선훈.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유태균, 이선훈.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학지사.
- 이혜경. (2008). 여성정신장애인의 모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2, 162-198.
UCI : G704-000500.2008..30.012
- 정연희. (2013). 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의미: 공감과 치유의 효과를 중심으로. *민족어문학*, 59, 59-84. UCI : G704-000917.2013..69.016
- 태명원. (2021).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221-229.
<http://doi.org/10.5392/JKCA.2021.21.04.220>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 <<https://kostat.go.kr>>. 검색일: 2025. 2. 16.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 <<https://stat.bucheon.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6229&menuid=092002003&boardid=965364>>. 검색일: 2025. 2. 15.
-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 검색일: 2025. 2. 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황보혜. (2019).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nzalez, M. T., & Kirkevold, M. (2014). Benefits of sensory garden and horticultural activities in dementia care: A modified scoping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19-20), 2698-2715.
<https://doi.org/10.1111/jocn.12388>
- Hassink, J., Elings, M., Zweekhorst, M., van den Nieuwenhuizen, N., & Smit, A. (2011).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pringer.
- Heyman, J. C., & Gutheil, I. A. (2008). Older persons'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Journal of Aging Studies*, 22(3), 205-214.
- Iacovo, F., & O'Connor, D. (Eds.).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Calameo.
- Kaplan, R. (2002). The nature of the view from home: Psychological benefit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8(5), 305-334.
- Pretty, J., Peacock, J., Sellens, M., & Griffin, M. (2011).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of green exerci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15(5), 319-337.
<https://doi.org/10.1080/09603120500155963>
- Sempik, J., Hine, R., & Wilcox, D. (2008).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Loughborough University.